

지역 소식통

용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세대 밀반찬 나눔 지원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병삼)가 11일 황토빛 나눔센터에서 관내 결식위기에 놓인 독거 청·장년 및 어르신 87세대를 대상으로 밀반찬 나눔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사업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밀반찬(파리고추 조립, 열무김치, 생채)을 직접 조리한 후 배달 소외지역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병행하며 신속하게 가정에 전달했다.

최병삼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껏 마련한 반찬이 조금이나마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  
모의투표 100여 명 참여

완주군의 청소년들이 4.10 총선 모의투표를 진행, 선거를 경험했다.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와 모의투표운동본부는 투표권이 없는 비유권자 청소년(2006년 4월 12일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 4.10 청소년모의투표를 진행했다.

청소년모의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QR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후에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투표는 5일과 6일, 오프라인은 10일 날로 4.10 총선과 같은 날 진행됐다.

이번 모의투표에는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소년모의투표 진행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비례정당 정책과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을 안내했다.

또한, 모의투표 의미와 방법 등을 교육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투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또래 친구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 청년거점공간 지역에 활기

삼례·봉동·이서 3개소 운영... 매일 문화·교육 프로그램, 소모임 활성화

완주군이 청년들의 소통·교류를 위한 공간을 운영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청년거점공간으로 삼례, 봉동, 이서 완주플래닛 3개소를 운영하며, 매일 지속적으로 문화, 교양 관련 프로그램 및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삼례읍 우석대 근처 신아빌딩

4층에 위치한 청년거점공간 '완충지대'에서는 4월 첫 프로그램으로 '저자와의 만남-북토크'가 열렸다.

지역 미디어 교육을 집필한 경희령 작가를 초청해 지역 미디어 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참여한 청년들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산면 버스터미널 건너편 2층

에 위치한 청년들의 사랑방 '청춘방앗간'에서는 '자전거를 깨워보자'라는 주제로 3월과 4월 두 차례 자전거 수리 생활기술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교육은 기본-심화 과정으로 진행하며 지난 3월에는 자전거 관리의 기본상식과 기초정비를 교육하고, 오는 13일에는 펌크 때우기와 튜브 교체하기 심화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 정비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전거 관리와 기본상식을 습득하고, 방치한 자전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취팔죽도서관 5층에 자리한 이서 청년거점공간 '이서나루'도 4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꽃 도어벨 만들기, 꽃 정물 나이프화로 각 10명씩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매일 초 방문접수 또는 인스타그램(planetwanju\_3)을 통해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많은 청년들이 완주 청년거점공간을 통해 자유롭게 창의적인 활동을 해나가길 소망한다"며 "지속적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청년거점공간 '완충지대'에서 4월 첫 프로그램으로 '저자와의 만남-북토크'가 열렸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환경개선사업 학습장을 방문했다.

## 진달래 학교 경로당반 책상·의자 설치

완주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14세트 지원

완주군이 사람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통해 진달래학교 경로당반(7개 학습장)에 책상과 의자 14세트를 설치 완료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진달래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매주 2회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된다.

어르신들의 열정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일부 책상이 부족해 바다에 앉아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다리를 구부리기 힘든 학습자들에게는 큰 어

려움이였다. 하지만, 이번엔 학습장에 책상과 의자가 지원되면서 어르신들은 편한 자세로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한 어르신은 "앞고 서기 편하고 너무 좋다"며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롭게 책상을 설치한 비봉 경로당반을 방문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진달래학교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행복콜택시 호응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55개 마을서 운행... 월 평균 4500여명 이용

김제시(시장 정성주) 행복콜택시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상반기 공공형 택시(행복콜택시)가 지역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55개 마을에서 운행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콜택시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4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을(교통 취약지)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는 공공형 택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26일 시민들의 발이 돼 줄 행복콜택시 운행자 42명을 선정,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조하며 행복콜택시 준수사항을 전달했다.

행복콜택시는 지난 2018년 6대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15대, 2020년 21대, 2021년 24대, 2022년 21(상반기 26대)대, 2023년 21대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 행복콜택시 이용자 수는 4,582명으로 월 평균 4,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행복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 A씨는 "버스 이용이 불편한 때 손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콜택시가 있어 너무 좋다"면서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콜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체감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행복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김제밀알회 '자장면 무료종식' 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밀알회(회장 최기산)가 오는 15일 김제시장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 이용 장애인과 이웃 주민 300명을 초청해 자장면 무료종식 후원 및 봉사를 진행한

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지관 내 식당에서 따뜻한 사랑을 담아 직접 자장면을 만들어 대접할 예정이다.

최기산 회장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지역 내 장애인 복지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밀알회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성인문해교육사업 공모 선정

국비 2400만원 확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교육부 주관 '2024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400만원을 확보하고 기초 문해교육을 비롯한 디지털 문해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하는 비문해자를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이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문해능력을 갖추고 정보, 영여 등 문해교육의 범위가 생활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엔 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한 생활과학, 경제활동, 직무 관련 능력 등 문해교육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선정을 통해 시는 지평선 학당 한글반을 비롯한 4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수준별 8개반이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사회전반적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기초 문자해독교육과 더불어 키오스크 주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은행계좌와 이체 등 학습자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는 실용도 높은 디지털 문해교육이 별도로 운영될 계획 이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생활 문해 교육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성인문해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초등학교졸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읍면동 9개소에서 '지평선 한글 사랑방'도 운영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글을 읽고 쓰는 문해력은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앞으로도 문해학습자들이 배움의 길을 넓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교육문화과(540-39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